

곳간 비는 도교육청... “강력한 구조조정” 예고

제주도의회 교육위 14일 도교육청 기금 고갈 집중 거론
올 연말 1017억원까지 급감... 경직성 경비 증가도 지적
도교육청 “일반 사업도 구조조정... 기금 조성 논의할 것”

제주도교육청이 조성에 운영 중인 각종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제454회 정례회 기간에 ‘2025회계연도 도교육청 결산’ 등을 심사하며 이 같은 문제를 거론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3541억 7200여만 원으로, 기금 여유 자금인 ‘통합계정’을 제외하면 2041억 7200여만 원 수준이다. 이는 전년도(2932억 6600여만 원)보다 890억원 이상 감소한 금액이다. 올 연말에는 1017억원 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김해지 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사실상 고갈 수준”이라며 “그동안 기금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재정 완충 장치 역할을 해 왔다. 자체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까지 소진하게 된다면 향후 세입 감소나 교부금 증가 폭 축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인건비 등 한 번 늘어나면 쉽게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는 문제도 거론하며 교육 사업 재원 감소를 우려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의 결산 기준 인건비는 2023년 약 6960억원에서 2024년 약 7500억원, 2025년 약 776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인건비만 놓고 보면 가용 재원인 보통교부금(약 1조633억원)의 70%를 웃도는 금액이다.

답변에 나선 문성인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인건비, 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일반 사업에도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

이라고 토로했다. 현재의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대적인 세출 구조 조정을 예고한 것이다.

이정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에도 2021년 세수가 빠르게 회복되며 교부금과 기금이 증가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현재는 재정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다. 재정 여건이 좋았던 시기에 새롭게 시작했거나 확대한 사업들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구조조정의 명확한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강동우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도교육청 조례(‘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교육감이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언급하며 “조례에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단 1%도 기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전부 다음 회계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쓴다”며 “(곳간을) 빼 먹으면 맛있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다시 채워 넣어야 다음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국장은 당장 실현이 어려운 한계를 설명하면서도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논의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제454회 정례회 기간에 ‘2025회계연도 도교육청 결산’ 등을 심사했다.

도교육청 제공

예초기에 부상... 별초 중 안전사고 속출

제주소방 “안전수칙 준수율”

지는 않았다.

앞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별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별초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가운데 예초기 등 농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사고가 가장 많은 상황이다. 지난 주말인 5·6일에도 별초 작업 중 예초기 사용에 따른 사고가 7건이 발생해 4명이 중상을 입고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안전본부는 “별초 기간에는 예초기와 농기구 사용이 늘면서 작은 부주의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별초 작업 시에는 작업 목적에 맞는 예초기 칼날 사용, 작업 전 돌·나뭇가지 등 위험요소 제거, 예초기 작업 시 상단에서 하단 방향으로 진행, 작업자 간 15m 이상 안전거리 확보, 장비를 완전히 정지한 뒤 이물질 제거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9시 36분쯤 제주시 애월읍에서는 예초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B씨가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오전 9시 45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에서도 50대 남성이 예초 작업을 하던 중 증상을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돼 병원으로 이송되

박소정기자

제주공항 테러 예고글 30대, 국가에 배상

항소심, 2270만원 배상 판결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5개 공항에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징역형을 받은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도 해야한다는 법원 선고를 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5-2부(김경태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30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는 원고에게 약 227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약 292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결정된 배상액이 1심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날 오전 0시 42분까지 6차례에 걸쳐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폭탄을 설치하고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같은 해 11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정부와 A씨 모두 항소를 제기해 2024년 1월 항소심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늘려 징역 2년 6개월을 A씨에게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비용은 일반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박소정기자

비교과 프로그램 공모 제주대 글로벌대학사업단

제주대학교 글로벌대학사업단이 오는 23일까지 에듀리프레시센터(센터) 비교과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센터는 제주대의 4대 특화 영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도내 전역을 현장 중심 교육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대 영역은 글로벌(Global, 글로벌 교류·다문화 이해), 오션(Ocean, 해양 생태·환경·체험),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지속가능성), 헤리티지(Heritage, 제주 역사·문화·자연) 등이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운영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 글로벌대학사업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은기자

항공관제 불법 청취 10대 중국인 입건

제주국제공항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항공관제를 불법 청취한 외국인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1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제주국제공항 하늘전망대 4층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관제탑과 항공기 간의 항공관제를 교신을 청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제주에 입국한 A씨는 본국에서 무전기를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수상하게 여긴 공항 직원이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양유리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엌 사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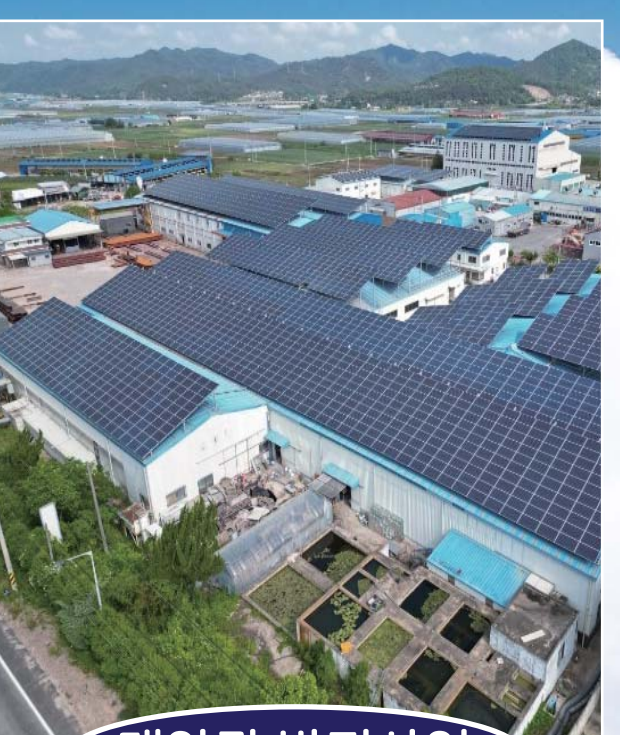
주택용 태양광

지붕부착형 · 주차장형 · 기본형 등
시공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가용 태양광

상가 · 펜션 · 카페 · 식당 · 유치원
카센터 · 게스트하우스 · 교회 · 사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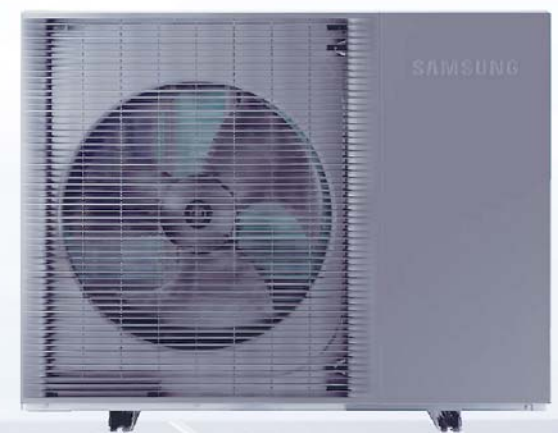


태양광 발전사업

*** 태양광 발전사업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에너지효율 378%



시공문의 064)721-3909



우리에너지코리아 (주)
동문시장 현대약국 앞



1544 - 4295